2007년 10월 30일

피쏘 슬로바키아 총리를 위한 만찬사

존경하는 로베르트 피쏘 총리 각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서울을 찾아 주신 각하와 일행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슬로바키아는 지금 정치적 안정 속에서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8.3%의 경제 성장과 41억 달러의 외자 유치를 이뤄 냈습니다. '쉥겐 협정' 과 '유로 존' 가입이 실현되면 이러한 발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각하의 지도력으로 슬로바키아가 중부유럽의 핵심국가로 더욱 힘차게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총리 각하,

수교 14년을 맞은 우리 두 나라는 이제 확실한 동반자가 되고 있습니다.

양국 간 교역량이 지난 4년 동안 열 배나 늘었고, 브라티슬라바 상주공관도 올해부터 대사급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이미 자동차와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60개에 이르는 우리 기업이 두 나라의 관계 발전과 번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각하께서도 얼마 전 우리 자동차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하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역과 투자는 물론, 과학기술과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한층 더 활발해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에 서명한 '문화협정' 등도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귀빈 여러분,

총리 각하의 건강과 슬로바키아의 번영, 그리고 우리 두 나라의 영원한 우정을 위해 축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건배!